

서울시, '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'을 환영한다

City of Seoul welcomes 'Innovations in tender and contract practices for construction work'

조충기 | 편집인 겸 편집국장

서울시가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3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해온 '턴키발주'(설계·시공 일괄입찰방식)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, 입찰담합이나 비리행위 업체에는 불이익을 적용해 시가 입은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'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'을 발표했다. 서울시가 26일 발표한 혁신방안의 기본원칙은 △턴키발주 원칙적 중단 △공정성 확보 △담합 일벌백계 △중소건설업체 참여 등이다. 또 혁신방안에는 그동안 비공개였던 설계평가회의에 시민 참관을 허용하고, 심의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한편 각종 회의록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. 입찰 담합 등 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는 사실상 서울시 공사를 낙찰할 수 없도록 입찰제한과 감점 확대 등의 징계도 강화되고,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외에 담합 등으로 서울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'손해배상 예정액제'도 도입한다.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공사비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를 적용하기로 했다.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물론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.

박원순 서울시장은 “서울시 건설 환경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참여업체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”며 “공사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대형 건설공사에 적용하던 턴키발주(설계·시공 일괄입찰)를 앞으로 중단하겠다.”고 밝혔다. 환영할 일이다! 이제라도 건설업자들의 단합과 비리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갑다. 우리나라의 수도다운 서울시의 의지는 곧 희망이다.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일! 이참에 심사위원의 비리에도 가차 없는 적용이 요구된다. 턴키제도의 문제점과 허점에 편승하여 이를 묵인하거나 뒷거래를 하여온 심사 교수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.

건설에서의 경쟁이란 무엇인가? 제대로 된 경쟁 속에서 선정된 창작물인 설계 도서를 두고 누가 더 경제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냐의 능력 아닌가. 공사비 낮추려고 설계내용을 변경하고 더럽거나 추한 짓거리로 일을 따는 제도는 전쟁이상의 것으로라도 싹을 잘라야 한다.

미국에서는 디자인(설계)과 시공이 각각 독립된 계약으로 진행되는 'Design-bid-Build' 방식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이다. 만약, 디자인(설계)과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'Design-Build' 방식(한국의 턴키방식과 유사함)이 활용되는 경우는 공사일정이 매우 시급하거나, 초기에 확실한 프로젝트 비용 산정이 필요할 때, 개략적인 설계도면으로도 프로젝트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때, 또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가능할 때 등에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.

박원순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 “로마가 멸망한 건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였다”며 “만연한 부실 공사를 없애기 위해 '부실 공사와의 전쟁'을 선포하고 '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혁신방안'도 발표하겠다.” 고 했다. 이 어찌 반갑지 아니한가? ▣